

2026학년도 3월 학평 대비 3점 모의평가 해설

1. 정답 ④
2. 정답 ④
3. 정답 ③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배포하거나 제작할 모든 모의고사는 이렇게 제 최초 풀이 혹은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했어야하는 생각들 (야매 포함)인 실전적 풀이와 교과서, ebs, 기출을 통해 활용했었어야 하는 내용들인 정석적 풀이를 모두 수록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번 문항 해설 정답 ④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사르트르이다.

[저자의 실전적 풀이]

1. 신앙이 가장 중요? 일단 제껴 두자!
- 2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규범을 못여겨? 그럼 완전 도덕적이라는 건데? 근데 왜 절망하고 신을 찾지?. 이진 아닌듯!
3. 너무 단정적인데 그리고 개념서에서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라고 봄. ○○
4.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이랑 다름없네 이게 정답!
5. 사르트르 입장에서 자유가 있으면 당연히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을 거고, 그럼 자유에 따른 책임은 어케 설명해? 분명 모든 책임은 인간을 불안하게 한다고 개념서에서 본듯

[저자의 정석적 풀이]

[정답해설]

④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지이다. 그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본질은 실존 이전에 정의될 수 없다고 보았다.

[오답해설]

① 키르케고르의 입장에서 틀린 선지이다. 그는 신앙이 아닌 절망이 주체적 인간을 규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참고] 2024학년도 수능특강 126페이지

절망은 주체성 있는 단독의 인간을 규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이다. 물론 절망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절망을 생각하는 일은 가능하다. (후략)

-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② 키르케고르의 입장에서 틀린 선지이다. 그에 따르면, 윤리적 실존 단계의 인간은 윤리 규범을 어길 수 있다.

[참고] 미래엔 윤리와 사상 153페이지

이 단계(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개인은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고 보편적 윤리를 따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윤리적 개인은 윤리 규범을 어기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불완전성을 자각하면서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된다.

③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틀린 선지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이다.

⑤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틀린 선지이다. 그에 따르면, 자유와 책임은 모두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참고] 2024학년도 수능특강 126페이지

불성실: 자유와 책임을 포함한 실존의 상황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데,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말함.

2번 문항 해설 정답 ④

해당 제시문의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저자의 실전적 풀이]

- ㄱ. 스피노자는 세상에 우연이 드러설 자리가 없다했고.. 교과서에서 분명 “모든 감정은 신적 필연성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배웠는데 ! 맞네
- ㄴ. ‘존재 방식’이 뭐지? 스피노자의 개념 안에서.. 존재 방식? 결정론인가? 결정론이면 다양한게 아니라 일정하겠네! 모두 신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니까 틀렸네
- ㄷ. 신적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만이 인간에게 유익하다면 틀린 거 쟁군. 분명 개념서에서 자기보존을 추구하는 것, 외부와의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게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선지는 맞네

[저자의 정석적 풀이]

- ㄱ.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지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감정은 신적 필연성에 의해서 발생한다.
- ㄴ.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지이다. 그에 따르면, 신적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 외에도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존재한다.

[참고] 천재 교과서 윤리와 사상

외부에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추구할 만한 것이 많다. ... (중략) ... 맛있는 음식 좋은 향기, 푸른 식물의 아름다움, 장식, 음악, 운동, 연극,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것으로 자신을 상쾌하게 하고 원기를 북돋우는 것은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다. -스피노자, [에티카]-

[오답해설]

- ㄴ.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틀린 선지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을 비롯한 자연 만물의 존재 방식은 일정하다.

[참고]

자연 안에는 우연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영향을 미치게끔 결정되어 있다. -스피노자, [에티카]-

3번 문항 해설 정답 ③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칸트이다.

[저자의 정석적 풀이]

ㄷ.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으로, 어떤 목적과도 관계가 없는 무조건적 명령이다.

[참고] 천재 교과서 윤리와 사상
그런데 도덕 법칙은 명령 중에서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명령, 즉 정언 명령의 형태로 제시된다

ㄹ.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아닌 존재인 신(神)도 도덕 법칙을 따른다.

[참고] 천재 교과서 윤리와 사상
도덕 법칙은 신조차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의지와 도덕 법칙은 일치하므로, 신성한 의지를 지닌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오답해설]

ㄱ.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인간을 반성으로 이끌 수 있다.

ㄴ.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믿음과 소망은 변할 수 있는 덕이다.

[참고]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인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왜냐하면 누구든 신의 나라에 도달할 때 믿음과 소망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사랑만은 더 크고 강하게 영속하기 때문이다.